의료 대란 영향

약 3주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, 의약품 처방량 감소, 영업활동 제약, 임상 시험 지연 등 우려. 다만, 의료 대란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화 될지 여부 지켜봐야함. 수액 등과 같은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중요한 전통제약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순 있으나, 시장은 단기 내수 실적보다는 신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어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◎ 단기 영향 제한적. 다만, 장기화된다면 제약사 내수 영업 활동 제약으로 처방율 및 임상 진척 둔화 가능

〉〉 정부의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음.
이로 인한 수술 건 수와 입원 감소로 마취제, 진통제, **수액**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처방 건 수 또한 감소 가능.
현재 빅5 제외한 의료기간에서 대략 20~30% 입원 환자 감소한 것으로 추산.
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고가의 항암제 등의 **처방 둔화로 이어질** 것으로 보임.
(만성질환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품목은 의료파업으로 인한 영향 제한적)

〉〉 의료인 대상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개최도 어려워지면서 **제약사 영업활동에도 차질**.

〉〉 국내 임상 시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.

〉〉 현재까지 파악된 제약사의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, 의료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 정부는 총선 전까지 의대 배정을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보도.

〉〉 **수액, 마취제 등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전통/중소형 제약사**들의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다만, **내수 실적보다 신약의 글로벌 확장**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/바이오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.

〉〉 제약/바이오 섹터는 미국암학회(AACR) 4/5~10일까지 개최 이후, 1Q24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의료 대란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잠시 숨고르기가 예상. 다만, ASCO 학회 초록 제목(4/24) 공개, MSCI 5월 정기변경, ASCO 초록 공개 5/23일, ASCO 본학회 개최(5/31~6/4일) 및 미국당뇨학회(ADA) 6/21~24일로 실적 시즌 이후 재차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3월 12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